

성·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. 국가생태문화탐방로는 생태 및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보중심의 길로 국가에서 인증받은 탐방로이다(환경부, 2015). 그 구성요소는 탐방자원, 길, 탐방시설, 탐방지역, 거점도시로 탐방자원의 가치, 전국적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생태탐방로 및 지역생태탐방로로 구분하였다. 주요 특징으로는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, 역사를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들을 선택적으로 발굴하여 조성·관리 하고 자연, 역사, 문화에 대한 체험·안내시설을 보완하고,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 또한, 탐방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·복원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쉽게 걷고 즐길 수 있는 길들을 위주로 조성하였다.

국가급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할 수 있는 권장구역을 탐방잠재가치 분석을 통해 설정하였다. 이는 자연자원이 풍부하거나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, 역사·문화자원이 있는 지역 등 탐방잠재가치가 높은 구역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.

농촌진흥청에서는 고유한 농촌전통문화를 테마로 발굴, 보존하여 체험학습, 농가 숙박, 농산물 직거래 등을 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자 농촌전통테마 마을사업을 제시하였다. 이 사업은 생활권·영농권 등이 같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연계하여 소권역 1개 범정리이상 단위로 개발하도록 하는데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가능지역은 대상지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기도 한다.

도시에서 시행, 운영되고 있는 녹색도시, 생태도시, 문화도시의 기본 조례 등을 분석하였다.